

포상팔국의 난 가야의 패권을 차지하라!



함안 말산리 고분군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3세기 전반 후한(後漢)이 멸망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 군현(한사군)과 활발히 교역하던 변한 지역 정치체들이 받은 영향은 매우 컸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경남 해안에 자리 잡은 8개의 국가가 모의하여 일으킨 전쟁이 포상팔국(浦上八國)의 난이다. 이들 8개국은 연합하여 가라(혹은 안라)를 공격하였는데, 가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신라가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포상팔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이들 8개국은 대부분 주변국에 흡수되거나 멸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쟁은 전기가야연맹의 중심이었던 가라(금관가야)가 쇠퇴하고 안라 등 내륙 세력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가야 사회가 전기가야연맹에서 후기가야연맹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되었다.

2 포상팔국의 명칭과 위치

포상팔국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관련사료](#) 와 『삼국유사』 [관련사료](#) 에 보인다. 그러나 8개국 중 국명을 알 수 있는 것은 5개국으로 골포국(骨浦國)·칠포국(漆浦國)·고사포국(古史浦國) 혹은 고자국(古自國)·사물국(史勿國)·보라국(保羅國)이다. 이들은 대체로 경상남도 해안에 위치하여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보통 골포국은 창원 마산합포구로, 칠포국은 함안 칠원면으로, 고사포국은 고성 지역으로, 사물국은 사천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라국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나주의 발라(發羅)로 보는 견해 또는 섬진강 하구 부근에 위치한 문모라(汶慕羅) 섬으로 비정하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지만 확실치 않다. 한편 함안에 위치한 안라국이 8국 중 하나로서 가라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다는 견해도 있다.

3 전쟁의 배경

변한 12국은 중국 군현(낙랑군·대방군)과의 교역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3세기 전반 후반이 붕괴하고 중원 세력이 분열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변한의 여러 국가도 정치적 성장 방향의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당시 진한(辰韓) 지역에서 사로국(斯盧國)이 진한의 여러 나라를 통합하기 시작한 것처럼 변한 지역에서도 각 소국들 사이에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급기야 변한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상남도 해안에 위치